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3.(금) 배포 시 배포 2026. 11. 13.(금)

단감, 10kg당 차랑11천원~부유17천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저가 거래 사례가 전체 가격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11월 11일(수) SBS뉴스, 「1년 키운 감 260kg이 18,980원... “중간상 농간 탓” vs “저질 하품이라”」와 11월 12일(목) 연합뉴스, 「감 260kg 팔아 고작 18,980원... “중간상 농간”vs“품질 탓”」 기사에서 ‘감 260kg을 경매에 넘기고 손에 쥔 돈이 18,980원에 그쳤다는 농가의 사연’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올해 10월~11월 상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차랑 단감의 총 거래 건수 3,396건 중 10kg당 평균가격이 1천원대인 거래는 총 15건(0.5%)으로 집계되어 기사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차랑 단감의 11월 상순 평균가격은 11,625원/10kg으로 차랑이 주로 거래되는 순천도매시장에서 10kg당 거래 평균가격(11.4일 기준)은 등외품(품위가 낮음) 1천원대, 상품은 2~3천원. 특품은 4~14천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차랑 단감의 주 수확기 직후이며 단감 대표 품종인 부유와 함께 출하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므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은 기사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하 주체에게 회수를 권유하거나 사전 협의 후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❷ 기사에서 언급된 차랑 품종 전체 재배면적은 7%에 불과하며, 단감 가격은 대다수(77.9%)를 차지하는 만생종 부유 가격으로 대표됩니다.

단감의 대표 품종은 10월 하순~11월 상순 출하되는 만생종 부유로 전체 단감 재배면적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조생종인 서촌, 중생종 태추, 차랑, 중만생종 감풍 등이 함께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유 품종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월 상순 기준 17,258원/10kg으로 전년 대비 7.4%, 평년 대비 14.0%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경남지역의 폭염으로 부유 품종 생산량이 7.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단감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14.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약세 및 사과 등 대체 품목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실제 도매가격은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❸ 단감 품종별 거래량, 평균 도·소매가격, 품위에 따른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극히 일부 사례만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는 산지·유통 현장의 혼란과 소비위축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소비촉진, 할인지원 및 출하조절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인 바, 물가와 관련하여 과도한 불안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보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조민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201-2260)
			주무관	윤근영 (044-201-2262)